

사 내 한

CN 09-35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Sept. 18, 2002

2009.09.04 (통권264호)

경제 이슈

- 미국 소비 및 저축 패턴 변화
-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경영 노트

- 인도 타타 그룹의 혁신 문화 조성

사회 트렌드

- 2050년 한국은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 사회'

차이나 리포트

- 중국 희토류 금속 공급 왜 줄이나?

저널 브리프

- 위기감 고조로 인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洗心錄

- 선덕여왕의 자기성장의 리더십

□ 미국 소비 및 저축 패턴 변화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소비, 가계부채, 저축의 패턴이 변하고 있음
 - 소비 : 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2001년~2008년 기간 중 평균 69.8%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높은 수치는 가계부채 규모 축소, 저축률 하락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 2008년 1/4분기에 가계부채 규모는 GDP대비 102%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및 주식가격이 하락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
 - 저축 :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률 증대. 저축률이 2008년에 가처분소득 대비 2.6%에서 2009년 1월~7월 기간 중 4.3%로 상승
- 한편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부문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수출 주도의 성장 국가는 내수 소비 비중을 증가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

□ 국내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 지식경제부(1일)에 따르면 수출 감소율 보다 수입 감소율이 더욱 축소되면서 8월 무역수지는 16.7억 달러로 전월대비 62% 감소
 - 무역수지 : 무역수지 흑자폭이 7월 44.1억 원에서 8월 16.7억 원으로 급감하여, 2009년 2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수출 : 2009년 8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한 290.8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는 전월 수출 감소율인 21.8%에 비해 1.2%p 개선됨
 - 수입 :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2.2% 감소한 274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는 전월 수입 감소율인 35.7%에 비해 3.5%p 개선됨
- 한편 대부분 수출 주력 품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율이 23.6%에서 13.1%로 둔화

* 브루킹스 연구소는 1927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기구임. 목적은 경제, 사회과학, 외교정책 등 분야를 연구하여 국가 정책 수행에 공헌하고자함.

□ 인도 타타 그룹의 혁신 문화 조성*

- 인도의 타타 그룹은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통해 2,000달러짜리 자동차 ‘타타 나노’ 개발, 1,000만 원대의 저가 주택 ‘수브 그리하’ 공급 등 혁신 전략으로 유명
 - 1991년 자국의 보호 산업이 개방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 혁신 문화의 조성 노력하였음
 - 그룹 차원의 Innovista Innovation Competition 개최와 Young Innovator Awards 등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독려와 보상의 문화를 조성
- 타타 그룹은 경영진, 관리자, 직원 차원에서의 혁신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공유 시스템을 수립하였음

< 타타 그룹의 혁신 문화 조성 방안 >

	내 용
경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타그룹의 경영진들은 TGIIF(타타그룹혁신포럼)를 구성하여 혁신 문화를 고취하고 성과를 공유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매니저들은 혁신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 혁신가 워크숍에 참여 · 각 부서 단위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생산 및 유통의 분위기 조성 과 관련된 관리자의 혁신 리더십 교육을 진행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5시간을 자기 계발, 아이디어의 제안 및 개선을 위한 개인 과제 수행의 시간으로 할당 ·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IdeaMax라는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 개진 및 추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것이 기업 내부에서 확산 및 발전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수립 · 바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그룹 내 각 연구소와 계열사에 제공하는 아이디어 확산 시스템 · 초기 아이디어는 인큐베이터 펀드를 통한 지원으로 연구소에서 진화시키는 아이디어 보완 시스템

*“How to Build a Culture of Innovation”(Business Week, 2009.8.19) 참조

□ 2050년 한국은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 사회’*

- 2050년 한국의 초상은 ‘저(低)인구, 초(超)고령화, 다(多)문화 사회’
 -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600만 명 이상 감소해 4,263만 명에 그침
 - 2050년 남북한 통합인구는 2009년 7,300만(남 4900만, 북 2400만)에서 2050년 6,700만 명(남 4200만, 북 2500만)이 될 것임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11%)보다 3배 이상 높은 38.2%로 올라가, 가장 중간에 있는 나이도 환갑을 4년여 앞둔 56.7세로, 선진국(45.6세)보다 10세 이상 많아짐
 - 연간 출생아수는 2010년 45.5만 명에서 2050년 19.3만 명으로 격감
 - 해외 노동인력 유입 등으로 외국인은 409만 명으로 불어나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면서 복합민족사회에 진입

- 주변 환경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
 - 이에 따라 소나무 대신 더위에 강한 졸참나무가 한반도의 대표 수종이 될 것임
 - 대규모 홍수와 가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별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남
 - 또 수면 상승으로 쓸 만한 땅이 줄어들면서 수상 또는 수중 건축물이 붐을 이루고, 고층건물에서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도시행태가 크게 바뀔 것

- 세계 경제는 미국이 쇠퇴하는 대신 신흥국이 부상할 것
 - 신흥경제국인 E7(브릭스인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과 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의 경제규모가 선진국 모임인 G7보다 50% 더 커질 것임
 - 중국 경제는 202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경제도 2050년에 미국에 거의 근접

-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의 50%를 로봇이 대체하며, 인간은 창조적이고 지적인 일만 담당하게 될 것

*“그랜드 비전 2050”(국토연구원) 참조

□ 중국 희토류 금속 공급 왜 줄이나?

■ (개요) 9월 3일 중국 정부는 국내 녹색 산업과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광물자원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보고서 발표

-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중국이 향후 희토류 금속의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추측이 팽배
 - 중국은 이미 3년 연속 희토류 금속의 수출 쿼터를 줄여 왔으며, 추가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 짐
 - 희토류 금속은 항공기, 하이브리드 카, iPod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금속 소비의 95%를 공급하고 있음

■ (원인) 중국이 공급을 제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

- 첨단 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함임
 - 중국 희토류 금속 매장량의 75%를 차지하는 내몽골(inner-mongolia) 지방정부는 최근 해외 첨단기업을 현지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 발표
- 희토류 금속의 불법거래를 단절하고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함임
 - 중국은 희토류 금속의 절대 공급권을 가졌으나, 일부 업자들의 불법적인 반출로 가격결정권이 취약한 실정임

■ (전망) 중국은 자원 비축량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희토류 금속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중국은 단순히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자원 비축량 확대(해외 광산 지분 확보)를 통해 가격결정권 확보에 나설 것임
- 전 세계 매장량의 43%는 중국 이외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개발 열풍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보임

□ 위기감 고조로 인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으로 새로운 트렌드 및 개인들의 인식 변화가 야기되고 있음
 - 우리사회는 수입증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사교육의 증대, 고령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취약점을 드러내어 개인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켰음
-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통해 이 같은 한국인의 인식변화를 관찰할 수 있음
 -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건강’, ‘가족’, ‘돈’, ‘친구’, ‘일’의 순서대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돈’과 ‘친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인의 가치 변화 >

	KGSS 결과	내 용
건강제일	‘건강’은 최근 몇 년째 중요도 1위 ('08, 39.2%)	· 비타민, 호박, 흑마늘 등 다양한 건강식품의 매출호조와 더불어 자전거, 테니스 등의 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
가족해체	‘가족’의 중요도 31.2% ('07) → 28.9% ('08)	· 자녀가 없는 2인 가정의 증가 · ‘초식남’, ‘건어물녀’** 등 결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취미와 삶을 더욱 중요시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자본축적	‘돈’의 중요도 14.5% ('07) → 16.2% ('08)	· 금융위기로 개인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 수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증가하고 자산축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연고주의	‘친구’의 중요도 3.1% ('07) → 4.8% ('08)	·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 동문,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짐
근로억욕저하	‘일’의 중요도 3.5% ('07) → 2.6% ('08)	· 높은 실업률, 좁은 취업문 및 조기 퇴직으로 인해 업무에 회의를 느끼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

* “각박해진 한국인 가치관 ‘가족’ 시들고 ‘돈’이 핀다”(시사저널, 2009.9.8) 참조
 ** ‘초식남’은 자신을 가꾸기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중시하는 남성, ‘건어물녀’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지만 퇴근하면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쉬기만 하는 여성을 의미함

□ 선덕여왕의 자기성장의 리더십

최근 시청률 50%를 육박하며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선덕여왕이다. 선덕여왕은 신라 제27대 왕(재위 632~647)으로서 한민족 역사상 여성으로서 처음 왕좌에 오른 인물이다. 또한 선덕여왕은 과학과 불교를 통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한 여왕으로서 첨성대를 건축하고 지금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신라 건축물의 백미인 황룡사를 건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덕여왕이 사극 드라마로 부활되어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가장 큰 특징은 성골 출신의 여성이 왕이 되기 위해 귀족인 진골 출신의 세주(옥새를 관리하는 관리) 미실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성장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드라마 상에서 보여주는 선덕여왕의 자기성장의 리더십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끝까지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 자기정체성을 알기 위해 어린 나이에 중국의 사막에서부터 신라로 혼혈단신으로 돌아오고, 자기정체성을 안 다음에는 연인인 김유신과의 사랑을 포기한다. 둘째로 믿음으로서 자신을 멸시했던 동료들의 믿음을 얻는다. 백제와의 전쟁에서 본진의 후퇴를 위해 미끼부대에 소속된 선덕여왕은 지휘자인 화랑이 부상당한 부하들을 처형하려 하자 목숨을 걸고 동료들과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공동체 운명을 주장한다. 셋째로 긍정의 힘을 믿는다. 경쟁자 미실과의 대화 속에서 권력은 백성들의 환상과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지만 선덕여왕은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주는 것이 권력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넷째로 변화를 추구한다. 경쟁자 미실로부터 일식현상을 통해 어렵게 빼앗은 천신황녀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왕권확립을 위해 불교를 선택한다. 다섯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노력한다. 경쟁자인 미실이나 그의 수하인 월촌대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경쟁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 말의 짧음은 사고의 넓음을 준다. ”

- 장 파울(1763~1825) : 독일의 작가